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2016.11.14. |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만 있을까? 스웨덴 해외연수 기회를 통해 기업 영역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국가-경제 부문-시민사회 영역 중에서도 시민사회 영역은 제도권이 아우르지 못하는 부문을 보완하는 주체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이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보고는 많다. 노인세대와 관련해서는 우울한 수치들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만 보더라도 힘겨운 노인세대의 현실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 노인이 OECD 국가들 중 70.5세로 가장 늦은 연령까지 일하지만(OECD, 2014년), 빈곤율과 자살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 노인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 노인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경향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노인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답도 전체의 22.5%였다. 노인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원인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 악화, 외로움,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 가족 건강 등이 뒤이어 큰 영향을 주고 있다(통계청, 2014년). 그러나 노인세대들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조차 없다는데 답답함이 있다. 수면을 취하거나, TV를 보거나 산책하는 방법 이외에는 음주, 흡연, 도박 등으로 빠지는 비중도 높다.

노인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만성적인 적자상태라는 점이지만, 이 못지않게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어 우울감이 크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게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인 고독사와 관련된 소식도 들려온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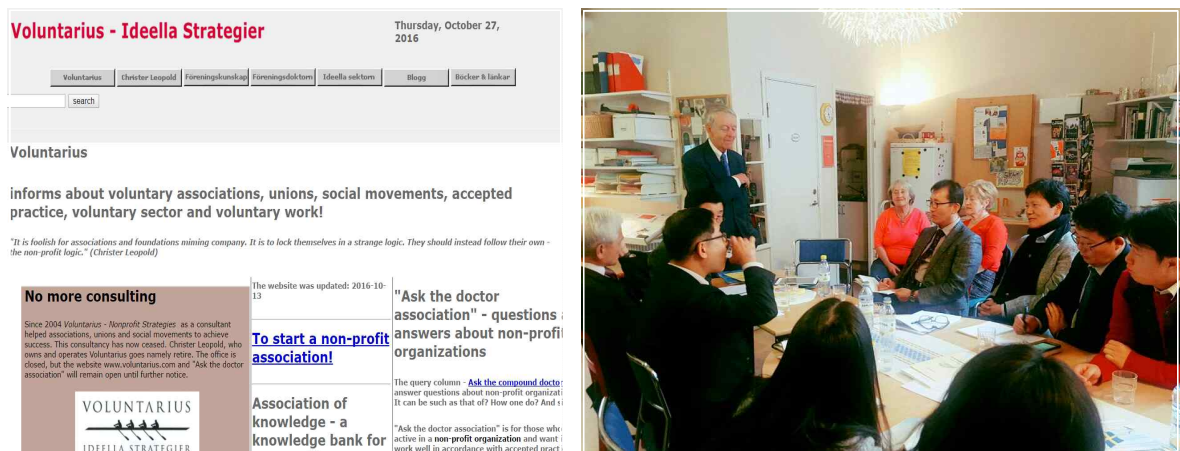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복지국가 스웨덴이라고 고령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경제상황이 매년 좋을 수만은 없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재정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올려야 할지,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축소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스웨덴 복지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싸워 일궈낸 투쟁의 산물이다. 짧게는 1930년부터 길게는 1800년대부터 시작된 스웨덴 복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해가며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만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번 스웨덴 연수를 통해 기업 영역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국가-경제 부문-시민사회 영역 이 세 주체가 국가가 맞을 고령 사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은 제도권이 아우르지 못하는 부문을 보완하는 주체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이다.

그림 1. 스웨덴 시민봉사단체 방문



출처: 시민봉사단체¹⁾ 홈페이지 <http://voluntarius.com/index.html>,
시민봉사단체 대표와 해외 연수단 간담회 사진(2016.10.7.)

시민봉사단체 소개

1) 현황

스웨덴 시민봉사단체는 주로 시나 시보다 작은 지구 수준에서 설립되어 있는 자원봉사 센터의 코디네이터 조직이다. 1984년 오레부로 란스팅(광역지자체), 오레부로시 및 오

1) 스웨덴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주소는 Viljan, Södermalms Frivilligcentral Magnus Ladulåsgatan 15, Stockholm, Sweden.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레부로대학의 협력프로젝트로 시작되어, 1993년 재단법인화 되었다.

오레부로시와 사회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지방의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을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오레부로 란스팅의 재단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각 시의 정치가, 관리직 및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자원봉사단체의 협력을 모색하여, 타 지구 및 시의 자원봉사센터의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단체의 재원은 시가 약 70%를 담당하며, 시와 자원봉사단체가 공동으로 약 17%를, 순수 자원봉사단체가 5%를 부담하고 있다. 운영을 살펴보면, 30%는 시, 16%는 자원봉사센터 독자협회, 10%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루어진다(국무총리비서실, 2016년 제3차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자료집, 2016.9).

시민봉사단체는 방문 연수단과 1시간동안 간담회를 가지며 운영 전반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단체 대표는 전 보건의로 총 책임을 맡기고 했고, 행정부에서 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분으로, 은퇴한 후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단체를 운영하는데 임대료, 급여, 사무용품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는 코문(기초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모금을 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으로부터 일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1년 활동 보고서를 꼼꼼히 제출한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올려 축적한다.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 단체는 1993년에 결성되었다. 연례 정기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회원들이 이사들을 선출한다. 현재 이 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2명인데, 직원 중 한명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체 회원은 현재 115명이다. 회원 중에 절반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은 봉사활동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다.

2015년 기관 활동보고서를 참고하면, 자원봉사자는 60명이고, 수혜자는 95명이다. 자원활동 횟수는 365건이다. 이 중에 여성이 317건, 남성이 48건으로 차이가 크다. 정기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25명이다. 1회 정도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 주요활동 및 특징

복지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제도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시민봉사단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틀 안에서 줄 수 없는 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단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실무자이자 이사는 대도시가 특히 외로움의 문제가 많다보니,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사회도 같이 건강해지고 유익해진다고 믿는다.

시민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자를 주로 돌본다. 그렇다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의 임무는 고령자들을 돌보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단체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의사를 만나러 가야하거나 이발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데 동반자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이 단체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일을 주로 한다. 외롭게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많다. 이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단체 활동을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베흘시장을 열기도 한다.

자원활동가들이 계속 활동을 하려면 자원봉사 자체에 압박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노하우를 밝히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등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가 있어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 자체에 재미를 느끼도록 노력한다. 이 단체는 외롭게 사는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를 맺어 줄 때, 공동의 관심사를 찾는데 노력한다. 예를 들면, 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봉사자와 수혜자로 만나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

시민봉사단체 공간에는 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다. 이 장소는 서로 소통하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눈다.

이곳에서는 스터디 서클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특징적이다. 책을 읽거나, 음악활동을 하거나, 문학 모임을 연다.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매일 이곳에 전화를 해서 잘 지내는지 안부전화를 한다. 전화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바로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실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소풍이나 야외활동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다. 이 지역 안에서도 이 단체와 비슷한 성격의 시설들이 많이 있다. 그곳과도 연계해 협업을 한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 나중에 자원봉사의 수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기도 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3) 역사적 배경²⁾

시민봉사단체가 어떻게 스웨덴에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더 찾아보았다. 시민봉사단체는 1990년 초에 노르웨이에서 스웨덴에 소개되었다. 스웨덴에서는 란스팅(광역시)이 먼저 시작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보다 앞서 영국에서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노르웨이 시민봉사단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설립과 운영을 기획했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높지 않았다.

이 아이디어의 기원은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스웨덴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맡은 업무를 책임지도록 조직한다면, 미국에서는 비영리기관이 자원봉사센터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관과 경쟁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원하는 걸 하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지향한다.

미국의 시민봉사의 유래는 1919년 미네소타주의 미네폴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 말에 28개 조직이었다면, 1986년 380개의 조직으로 급성장했다가 2005년에는 365개로 약간 줄어들긴 했다. 1951년에 형성되어 1960년에 전문적인 협회로 거듭났다. 이후 몇 년간 운영과 지원체계가 변하면서 1990년에 지금의 시민봉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2000년에 인터넷 기반의 시민봉사단체로 거듭나면서 성장하고 있다.³⁾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시민봉사단체가 여러 나라로 퍼졌다. 시민봉사단체는 1980년대 중반에 영국에 290여개가 설립되었고, 네덜란드에 200여개, 캐나다에 80여개, 프랑스에 35개, 홍콩, 일본, 호주 등지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에 적합한 비영리기관을 찾아주는 일을 주로 한다. 게다가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높이고,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조직하는지도 가르쳐준다.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뒤늦게 시민봉사단체가 설립되었다. 1990년 초에 노르웨이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소개했고, 뒤이어 스웨덴에도 영향을 주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애초 모델과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그것은 바로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을 다른 기관에 연결하는 대신, 시민봉사단체가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모델이 스웨덴에 영향을 주어 다수를 이룬다. 스웨덴에서도 미국의 전통적인 시민봉사단체와 같이 활동하는 곳도 있다⁴⁾.

2) Chris Leopold(1993), "Information and support for volunteers in the American Red Cross - A report from a study trip to the United States in September 1992. Stockholm: Swedish Red Cross", pp.29-31와 홈페이지 소개내용 참고.

3) www.1-800-Volunteer.org

4) Volontärbyrån, www.volontarbyran.org



1992년 9월, 시민봉사단체의 창립자 중 한명인 크리스 레오폴드(Chris Leopold)가 미국에 가서 적십자나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봉사활동을 조직하는지를 보고 배웠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롯(Charlotte) 도시를 방문해 인터뷰를 가졌다.

샬롯의 시민봉사단체는 3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165개 기관과 협약해 협력하고 있다. 주된 일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기관을 찾아주는 일이다. 의지가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형식에 맞춰 기입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기대들을 적는다. 이러한 내용은 저장되어 컴퓨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원하는 고객과 연결되어 자원활동을 한다.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기관에 제안한다. 처음 8개월 동안에는 750명이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활동가들이 있는데, 평균 연령은 34세이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 저녁 시간에 일하기를 원한다. 더 이상 아내의 역할에만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회와도 협업해 1000명 정도로 성장했다.

스웨덴 모델은 미국과 차별화된다. 미국과 스웨덴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원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타입A는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할 적합한 기관을 찾아주는 형태다. 스웨덴 방식은 다르다. 타입A는 고용 형태라면, 타입B는 고용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 타입A는 단지 자원활동 후보들로, 어떤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책임은 소속 기관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타입B에서는 자신들의 자원활동에 대해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관은 내부 연대를 강화하고, 선택, 훈련, 관리, 모니터링 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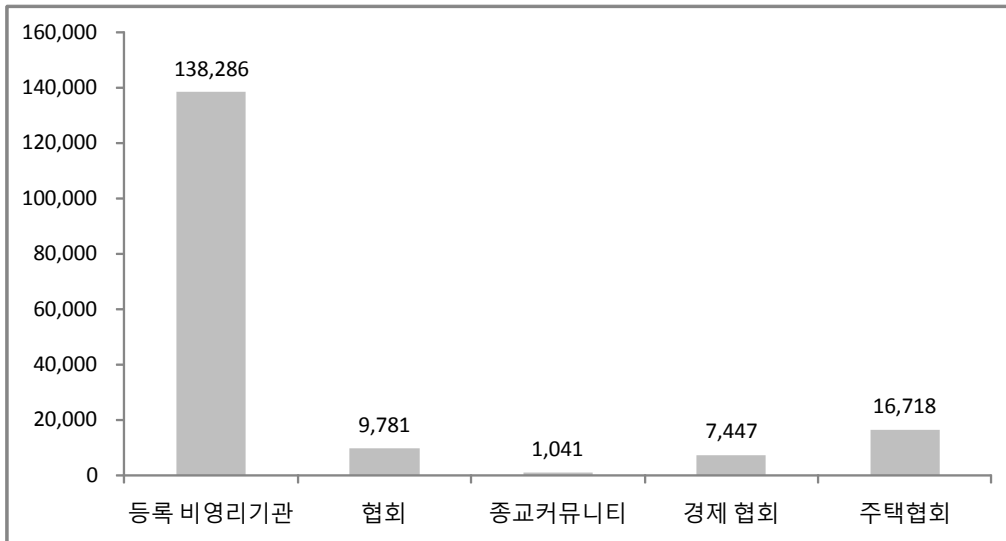
시민봉사단체가 하는 일은 ①모집, 추천, 연결: 시민봉사단체는 자원활동으로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추천하고 연결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 한다. ②컨설팅과 훈련: 자원활동가와 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컨설팅하고 훈련한다. 이는 비영리기관 직원, 이사회,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사회적 이해 높이기: 자원활동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④자원활동 홍보: 자원활동 주간을 정해 활동을 널리 알리고, 기관으로부터 보상도 받게 한다.

기업과도 협력한다. 이것을 “회복 시간(release time)” 이라고도 부른다. 기업들 스스로가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시민봉사단체는 젊은이들의 자원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젊은 활동가들을 유인할 자원이 없는 상태다. 13~14세 아동은 여름 방학 기간에 환자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일하는 경험을 안겨준다. 이는 병원이 나서서 조직화한 사례다.

지원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연락하면 된다. 중요한 정보는 지역신문을 통해 알린다. 그리고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알린다. 매년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같이 11월~12월 크리스마스 활동 자원활동가들을 모은다. 이는 공동작업이다. 매년 4월에 자원활동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주간을 열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SCB)에 의하면, 세무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은 2011년 11월 현재 모두 13만 8286개이다. 이에 특별법으로 관리 받는 협회가 9781개, 종교커뮤니티가 1041개이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자원봉사기관은 모두 14만 9108개이다.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기관도 있어 이를 합하면 더 큰 수가 될 것이다. 비영리기관은 경제부문과 비교되는데, 경제 협회는 7447개, 주택협회는 1만 6718개로 전체 유사 사업은 2만 4165개이다.

그림 2. 스웨덴 비영리기관 현황



출처: 스웨덴 통계청, 비영리기관 현황, 2011.11(기준)

시사점

첫째, 국가-경제-시민사회 세 영역이 긴밀히 협력해 오늘날 복지는 발전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노인 복지나 돌봄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 정부가 시민봉사단체라는 독특한 모델을 활용해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시민봉사단체의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도입되었지만, 스웨덴에서는 광역시라 할 수 있는 란스팅이 주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높게 부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이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더군다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원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은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지역 공동체가 적극 돕는다. 노년세대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보조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한국 돌봄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제약이 크다.

스웨덴 노인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생활해오던 공간 안에서 도움을 받고 생활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어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많다. 이들이 사는 재미와 생활의 활력을 되찾도록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연결해 건강한 사회 기반을 단단히 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총비용을 낮추는 일이면서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외로움이 줄어들면 질병도 감소한다. 사실 사람들이 아프면 사회에 주는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시민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무료 노동에 대한 가치 전환에서 가능하다. 돈을 버는 노동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자원활동은 자신의 일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의미를 일깨워준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뿐 아니라 기업과도 협력하고 있다. 기업이 나서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보장해 사회에도 기여하고 있다.

질의응답

Q.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A.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결되면 어르신들이 실내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A. 보통 65세~75세이며,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이유는 더 오래 살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Q. 여성 자원봉사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도움을 받는 사람도 여자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도 남자보다 여성이 깁니다. 게다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사회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Q.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A.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몇 번 먼저 만나게 합니다. 수혜자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부탁이 들어오면, 직접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기초 조사를 합니다. 이후 자원봉사자 중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임시로 만나게 하고,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연계해 줍니다. 자원봉사자는 미리 등록서를 쓰고, 인터뷰를 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유용합니다.

Q. 재정지원을 받는 시로부터 관리감독이 있습니까?

A. 1년 예산은 85만 크로나입니다. 이 중 50만 크로나를 코문에서 받습니다. 매년 활동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다른 규칙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Q. 자원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무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A.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자원활동가라면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의무적이거나, 정기적인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스웨덴의 자원봉사의 흐름에 변화가 있습니까?

A.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시간을 구속받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원활동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협회를 내세우면 일이 더 쉽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릇을 무료로 가져가라면 누구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협회라고 알리면 모두가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Q. 성공적으로 시민봉사단체를 운영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A.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성공에 필요한 요건이라면 정년을 맞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일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자원봉사 활동에는 조금씩 시간 투자를 늘려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Q. 실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A. 자원봉사자들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여전히 일을 병행하고 있지만, 일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활용해 자원활동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Q. 긴급 아동돌봄의 일도 합니까?

A. 요청이 오면 긴급하게 아동을 하원시켜 데려오는 일은 하지만, 긴급돌봄을 수행하는 다른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나 싱글부모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11월 1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어른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새사연 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년 경제위기와 닮았다	최정은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
청년	8/16	휴가분한 후퇴, 반쪽짜리 지방생활	송민정
주거	8/23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 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 후퇴	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 부실화 막을 방안 세 가지	송종운
경제	9/19	[한국 경제동향①]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①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정승일
경제	10/2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정승일
사회적 경제	10/24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강세진
노동	10/31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새사연 노동연구팀
경제	11/4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③ '한류 드라마' 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주의	정승일
경제	11/7	삼부토건 사례를 통해 본 기업 및 금융민주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과제 ①	김영석
경제	11/11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④ '돈이 돈 버는' 재테크 자본주의	정승일
복지	11/14	시민이 스스로 하는 복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	최정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